

건축가들에 의한 웹용 검색엔진(건축학온라인) 발견

검색엔진은 사이버 공간을 유영할 때 이정표 역할을 한다. 향후 검색엔진은 불필요한 검색어를 삭제하고 단시간에 목적지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불필요한 검색어를 걸러내고 목적지에 최단 시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검색엔진. 필요한 정보 데이터에 인도하는 다양한 나침반들이 등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새들은 지상에서는 인간을 천상에서는 신을 충분히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천상과 지상사이의 구름에 도시를 세우기로 한다. 그들은 그것을 “이상향(Cloud-Cuckoo Land)”이라 칭한다.

-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들 중에

1999년 7월 세계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설계 도구, 즉 건축학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웹용 검색 엔진을 발견하였다 [<http://www.theo.tu-cottbus.de/Search/>]. 독일 코트버스의 브렌덴버그 과학기술 대학이 내놓은 이 무료 검색 엔진은 클라우드-쿠쿠-랜드라는 건축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체 사이트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 사이트에는 또한 국제 건축학 이론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Theory) [http://www.theo.tu-cottbus.de/wolke/cloud_1.html]이라는 온라인 저널도 포함된다. 독일에서 시작된 사이트 외에도 온라인 저널에 대해 2개의 미러 사이트가 있는데 러시아 미러 사이 [http://www.theo.tucottbusde/wolke/samok_1.html]와 캐나다 맥길 대학이 운영하는 두 번째 미러 사이트 [<http://www.ncgill.ca/wolke/>]가 그것이다. 이 세가지 모두가 온라인 저널의 특정 언어 버전에 대한 링크들을 구성하며 동일한 혼합 언어 검색 엔진 사이트인 건축학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클라우드-쿠쿠-랜드(CCL)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새들(The Birds)에서 그려지는 이상향을 말한다. 이 사이트는 건축학 이론에 대한 국제적인 온라인 토론장을 제공한다. 이는 또한 연구 자료에 대한 액세스, 도서관 네트워크, 과거 토픽들에 대한 전자 저널, 건축학 전문가들 목록, 신간 문헌, 건축학 온라인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원한다.

1994년 토론장에의 국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세계 30명의 동료들로 구성된 한 그룹, 공동으로 이름하여 “더 체어”가 국제 건축학 이론 저널이 사용하는 6개-언어 건축학 사전과 검색 엔진 건축학 온라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더 체어는 8명의 교사와 연구가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3개국어 온라인 저널을 편집하고 검색 엔진에 대한 소스를 검토한다.

국제 건축학 이론 저널의 편집장인 에드워드 퓨어 박사에 따르면 CCL은 두 영역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는데, 건축학 이론이 건축학 실제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이며 이곳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평범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사고(思考)가 행동을 기초로 하며 건축이 생활을 기초로 하고 창조가 그 과정을 기초로 하며 기술(예술)이 일상을 기초로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건축학 매거진 CCL은 아리스토파네스의 견지로 볼 때 모든 언어와 문화 등을 망라한 도시 비평가들과 이론가들을 “그의 새로운 세계의 거주자”로서 사로잡아왔다.

검색 엔진

[건축학 온라인]은 검색기로서 정확한 건축학 검색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에드워드 퓨어 박사, 국제 건축학 이론 저널 편집장

건축학 온라인은 로고와 의미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 문자인 알파와 오메가로 표시된다. 오메가라는 단어를 건축 설계의 의미에서 고려하든 않든 이는 영향력 있는 단어로 검색 엔진의 국제적인 협력과 확장을 통한 장수와 독특한 적용범위를 약속한다.

건축가(architect)라는 단어는 우두머리나 대가를 뜻하는 "archi" 와 일꾼을 뜻하는 "tekton"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건축학과 그리스 문화사이의 오랜 관계는 세가지 그리스 건축 양식인 도리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기원전 650년경)에서 유래한다. 이를 그리스 고전 양식과 스타일과 시각 비율(visual proportion)들은 서양 건축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후에 로마인들(기원전 500년경)이 새로 운 설계와 공학 원리들과 더불어 터스커니 양식과 혼합 양식이라는 두 가지 고전 양식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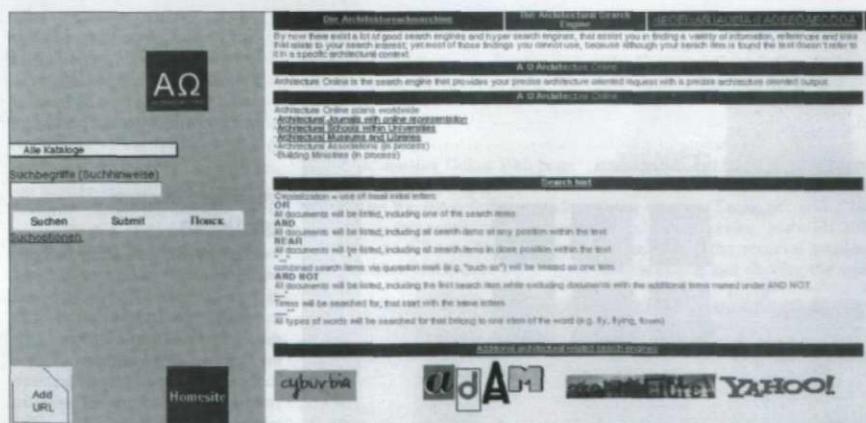
지난 15년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산업은 건축공학 분야의 많은 용어들을 흡수하여 서치 용어들 및 서치 검색(search retrieval)에 중대한 곤란을 초래하여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네트를 서핑하는 동안 건

축가들은 고스트 검색(ghost retrieval), 즉 철자는 정확하지만 문맥과 의미가 완전히 틀리는 것들에 고생한다. 건축가들에게 있어 정보 고속도로는 건물의 외관(허울)은 많지만 진짜 건물은 거의 없는 일종의 하이테크 서부 영화의 거리 씬에 다름 아니다 <http://www.pr0fusion.com>에서 "architecture AND online"을 입력하면 156개의 히트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중 1/3이상이 컴퓨터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보는 곳에서 설계 기회를 보는 것이 건축가들의 속성이다. 모든 문제들에는 기회나 해답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이 검색 엔진 건축학 온라인을 상상하고 창조하여 이제 그것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온전히 건축학에만 소용되는 서치엔진, 다시 말해 건축학과 관련 있는 결과와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일반 서치 기계들(예를 들어 핫보트나 야후!)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실망스런 결과들에 기인했다. 그런 기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결과들을 제공하지만 원하는 주제와는 무관한 것들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원래 건축학 용어들을 예를 들어 정보 테크놀로지 분야 등에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를테면 '하드웨어 건축학'을 보라"고 에드워드 퓨어 박사는 설명한다. 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동료 검토(피어 리뷰, peer review)를 갖춘 검색 엔진

의 구성은 검색 엔진에 정확한 건축학 정보 검색을 제공한다. 현재 검색 엔진은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사이트들을 서치하고 검색 할 수 있다. 색인이 붙은 페이지들의 수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지만 이 검색 엔진의 정확성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가장 난이한 영어



〈그림 1〉 건축학 온라인의 개시 화면(영어판)은 대형 스크린 모니터에 맞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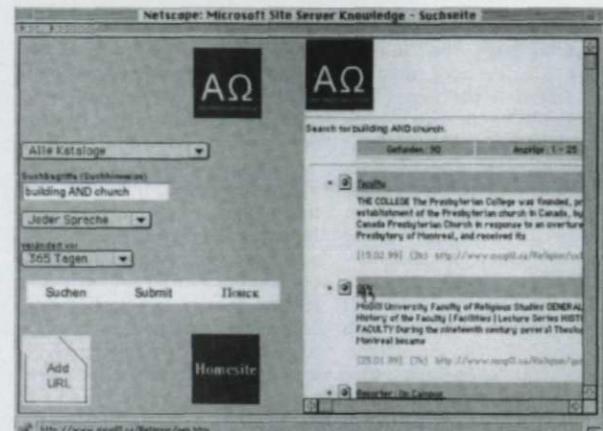
용어들을 사용할때에도 데드 링크(dead links)와 이동된 페이지 참조문(movedpage references)들의 비율은 5% 미만이며 관련된 적합한 링크와 페이지들이 95%였다.

인터페이스 구조 및 설계

이 웹 사이트는 부드러운 색상과 최소한의 그래픽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액세스 가능성도 안정되며, 기타 다른 건축학 소스들에의 3개 링크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곤 광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로드시 자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이트의 구성은 실용적이고 전문적 이서 검색자들을 혼란시키거나 로딩 시간을 방해하는 아이콘들이 거의 없다.

이 검색 엔진은 이제 막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가지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 개선 과정에는 정기적이고 끊임없는 갱신과 트위킹(시스템의 소수변경)이 포함된다. 주목하게 될 첫 번째 것은 3개 단어가 들어있는 서치 바이다. 2개 단어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나 3번째 단어는 러시아어이다. 러시아어 단어는 동일한 서치 바위에 영어 "Search"와 독일어 "Suchen" 옆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 러시아어 용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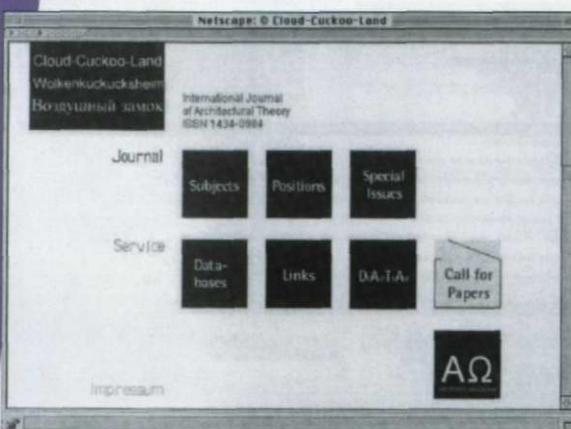
서식에 대한 텍스트는 독일어로 되어있는 반면 서치 안내문 페이지들은 영어 번역본 옵션을 가지고 있다(그림3 참조). 그러나 서식 이용 설명서가 매우 직관적이므로 설



(그림 3) 서치 바, 질문창, 검색창, 진보된 서치 옵션들을 보여주는 서치 창 페이지

명서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 독일어 단어들을 가르쳐줄 것이다. 또한 독일어는 영어와 동일한 어근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다. 일부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Gefunden(Found) = hits retrieved(검색된 히트들), Tagen = day(일), Stunden = hours(시간), Jeder Sprach = all languages(모든 언어), Anzeige = display(디스플레이), Weitere = further(그 이상의), Ergebnisse = results(결과).

사이트 인터페이스는 항해가 비교적 쉬우나 한가지 예외점이 있는데 설계자들이 대형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보다 작은 스크린으로 작업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페이지는 시각적으로 2등분 되어 있는데 서치 질문 버튼, 풀다운, 질문창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검색창이 위치한다. 여러분이 대형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링크 정보의 전체 라인을 읽을 수 있는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가지 선택사항들이 있는데, 소형 모니터의 경우 창을 최대 크기로 확대해서 창을 스크린의 가장자리 밖으로 밀어낸 다음 다시 창을 확대하여 검색면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다(불행히도 이렇게 하면 스크린을 리셋(재설정)하지 않고는 질문면을 볼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창을 최대 크기로 확대한 다음 전후 스크롤링과 상하 스크롤링을 모두 사용하여 검색된 것들을 읽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보다 큰 모니터를 구입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방법은 사이트 설계자들에게 이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림 2) 클라우드-쿠쿠-랜드 내용 페이지

그리고 아직 3개 국어 모두로 제공되지 않는 페이지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때로 뜻밖의 이미지들의 보고가 될 수 있다. 링크들의 상당수가 영어 이외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페이지들로 연결되나 영어 번역판이 옵션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어떤 한 사이트가 1개 국어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어딘가에서 조그마한 영국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영어판으로 연결된다. 좀 더 대담해지고 좀 더 단호하라, 그러면 진짜 훌륭한 건축학 사이트들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건축가들은 전세계 건축학 정보에 대한 보다 많은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사이트에 더 많은 언어들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사이에 다른 언어 옵션이 없지만 그럼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페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http://babelfish.altavista.digital.com/cgi-bin/translate?n>나 <http://translate-free.com>과 같은 웹상의 번역 사이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측면들

독일어를 읽을 줄 모르면 이 검색 엔진의 가장 뛰어난 부분 중의 하나를 놓칠 수도 있는데 독일의 48개 건축 전문대 및 대학들에 대한 핫 링크들을 담은 페이지와 전세계 44개 건축학 저널, 잡지, 회보에 대한 핫 링크들을 담은 페이지, 그리고 7개 건축학 박물관에 대한 핫 링크들을 담은 페이지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 이들 목록들은 건축학 온라인 웹 페이지의 독일어 “서치 팁스(search tips)” 부분에서만 액세스 가능하나 영어판이 곧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이트는 계속해서 이들 범주와

새로운 범주들에 대한 새로운 링크들을 추가하고 있다. 검은 글씨로 밑줄이 쳐진 핫 링크 목록들을 찾아보라:

서치 리미츠

일자	365일 30일 7일 24시간
언어	모든 언어(jeder sprach)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범주	전체 목록(Alle Katalog) 온라인 건축학 저널 건축학 및 도시 계획 학교 건축 박물관 및 갤러리 건축학 전문 도서관 건축학 협회 건축학 및 도시 기관, 건축부

한가지 흥미로운 사항은 서치에서 “Mehr als 200”(200 이상)이나 다른 어떤 번호가 나타날 경우 검색창 아래쪽에 있는 “Anzeige”(디스플레이)라는 우측 버튼을 계속 치면 25개 그룹의 히트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그림4 참조). 예를 들어 “잡지는 저널(magazine OR journal)”에 대한 서치에서 서치 범위 “Englisch”와 “365 tagen”를 사용하여 입력하면 검색창 꼭대기에 “Mehr als 200”이 나타날 것이다. 200에 도달하기 위해 창을 스크롤하여 클릭한 후 “Anzeigen” 버튼을 계속해서 클릭하면 각각의 검색 페이지들에는 “Mehr als 225” “Mehr als 250” “Mehr als 275” 등이 보여질 것이다.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이 검색 엔진의 경탄할 만한 측면들은 이것이 건축학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설계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

독일어 “서치 팁” 페이지	영어 “서치 팁” 페이지
Architekturzeichchriften, die online sind universitaire Architekturinstitute Architekturmuseen und bibliotheken	건축학 저널 온라인 건축 대학 건축 박물관 및 도서관

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이 검색 엔진은 무료이나 그럼에도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들만큼이나 원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대부분의 건축학 저널 및 잡지에 접속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가들과 건축학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들 대부분은 영상이 부족하다. 선화(線畫)라도 하나 얻었다면 그건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 더군다나 도면이나 입면도, 단면도, 사진이야 꿈이라도 꾸겠는가. 건축학에서 영상은 기사 및 잡지의 지극히 중요한 특징이다. 건축가들은 영상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로부터 비전을 얻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영상에 대한 보다 나은 온라인 접속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유토피아가 어디 있겠는가.

거의 일년 남짓된 건축학 온라인은 현재에는 주로 유럽 중심의 많은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접속을 제공한다. 만든 이들은 매일 링크와 소스를 계속해서 추가하여 훌륭한 건축 및 도시 사진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의 서치에 보다 세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싶다면 이 건축학 검색 엔진을 북마크하라.

기타건축학 소스들

건축학 소스들에 대한 몇 안되는 색인 및 디렉토리들 가운데 건축 및 조경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타 다른 진정한 건축학 검색 엔진은 토론토 대학의 조경 연구 센터(<http://www.clr.toronto.edu/VIRTUALLIB/arch/html>)하나뿐이다. 미국 리소스 디렉토리 CYBURBIA(<http://www.ap.buffalo.edu/pairc>)와 영국의ADAM(Art,Design,ArchitectureandMedia)(<http://adam.ac.uk/adam/index.html>) 모두 서양의 소스 범위를 제공한다. ADAM은 기금 부족에 허덕이며 어렵게 계속되고 있다. “ADAM이 기금이 다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칭은 바뀔 수 있어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ADAM 프로젝트 리더인 레베카 레비는 말한다.

건축학 정보에 대한 서칭은 웹상의 많은 혼란스런 사이트들을 제공하나 만족스러운 사이트들은 극히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서치의 범위를 좁혀 진정한 건축학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 검색 엔진을 통해 불필요 연산법을 시도하는 것 또한 별 효과가 없다. 건축학 온라인을 사용하면 이용자들은 사례 연구, 지속 가능한 건물 정보, 멋진 사진 및 영상, 유럽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소스, 고무적이고 유익한 사이트들을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건축학 온라인은 건축학 연구자들이 전세계의 건축학계에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검색 엔진 건축학 온라인은 아직 유토피아는 아닐 수 있으나 위대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메리 코레트 월레스는, 건축가, 엔지니어 및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레스 리서치 그룹의 회장임.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wallaceresearch.net>이나 infor@wallaceresearch.net얻을 수 있음. ☎

* 월레스 리서치 그룹 AIA 준 회장. 메리 코레트 월레스 글

정기구독안내

1. 구독신청방법

- 일단, 02-318-5050(ext 119)번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은행구좌로 구독료를 입금하신 다음 데이터베이스월드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 구독자 또는 구독기관명, 구독기간, 책을 받아보실 주소, 신청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02-318-5040번 팩스로 넣어 주셔도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3. 정기구독료

6개월 : 30,000원 1년 : 55,000원 2년 : 110,000원

* 권당 가격은 5,000원입니다.

*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구독료 입금계좌

- 조흥은행 수송동지점 390-03-003978/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344-25-0003-861/
- 예금주 : 한국DB진흥센터